

진급점검 / WCC의 문제점 한국기독교WCC반대대책위원회

WCC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종교혼합주의①

호킹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교리를 통렬히 비난했다. 중생은 정신적인 영향력이며, 모든 종교는 동등하므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WCC는 종교혼합주의를 용인하며 지향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WCC 제 7차 총회(1991)는 '구원을 떠도는 혼령'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로 시작했다. 죽은 지의 혼을 불러들이는 제사로 시작한 것이다. 성경을 우주 만물에 내재하는 에네르기(에너지)와 동일시하고, 성경을 물질론적으로 해석하는 이론과 주장들을 용인했다. 목적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범신론과 종교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혼제는 정현경 교수(당시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개인의 '에피소드 나 해프닝'이 아니었다. WCC의 신학적 경향을 보여준 기회 행사였다.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기조강연 강단은 사전준비, 합, 계획없이 아무나 등단하여 아무 것이나 말할 수 있는 곳이었다. 기조강연자 정현경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성경으로, 한 맺힌 영들을 성경이라면서 불러들이고 죽은 자들의 '혼령'을 성경, 성경의 아이아이라고 했다. 초혼제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종교다원주의를 넘어 종교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WCC는 기독교 신앙공동체를 넘어서는 종교 일치운동을 추구한다. 다문화, 다종교, 복합사회의 다양성과 일치하고자 하는 '폭넓은 에큐메니즘', '거대 에큐메니즘'을 거론하고 있다. 종교간의 '대화'의 영역을 확대하여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역사적인 종교들과 일치와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WCC 초기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 목소리는 WCC의 기원인 에루살렘신교대회(1928)가 종교간의 대화를 처음 제안할 때 등장했다. 에루살렘신교대회에 참석한 하버드대학교의 윌리엄 호킹 교수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하나의 거대한 세계종교 안에 통합시키고 종교 일치목표로 서로서로를 자극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선교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거대한 새로운 종교 집단 안에 모일 수 있다고 했다.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열린 탬버람세계신교대회(1938)는 에루살렘신교대회와 거론한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 문제를 다루었다. 다른 종교에도 깊은 종교적 경건과 위대한 도덕적 성취가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타종교인들에게 드러내 보여 왔다고 선언했다. 그 내용은 1990년에 WCC가 표명한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종교혼합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종교혼합주의가 본격적으로 기독교권에서 논의된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였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일단의 아메리카 침례교도들은 외국선교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선교 연구기관을 만들었다. 연구단장은 에루살렘신교대회에서 종교혼합주의를 제창한 하버드대학교의 윌리엄 호킹이었다.

호킹의 연구보고서 '선교제고론' (1932)은 기독교의 존재의 의가 특이한 역사나 교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진리를 나누어 가지는 데 있으므로, 선교사는 세계의 타종교들과 공통적인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통가 여기면서 모든 종교들이 거대한 종교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 선교는 예수 전도를 중단하고 영적 차원에서 세계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호킹에 따르면, 선교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자들과 '대화'하면서 더불어 진리를 찾는 것이다. "종교들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점차 진리를 공동으로 찾아가는 모양을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기독교계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호킹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교리를 통렬히 비난했다. 중생은 정신적인 영향력이며, 모든 종교는 동등하므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호킹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교리를 통렬히 비난했다. 중생은 정신적인 영향력이며, 모든 종교는 동등하므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호킹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교리를 통렬히 비난했다. 중생은 정신적인 영향력이며, 모든 종교는 동등하므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2. 초혼제-오소서, 성경이여!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모인 WCC 제 7차 총회(1991)는 성경을 만물 속에 깃들여 있는 영으로 이해하는 정령사상과 성경을 물질론적으로 해석하는 신학 이론과 주장들을 묵인했다. 이 총회는 어울리게 죽은 '영'들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로 시작했다.

초혼제로, 기독교와 사마리즘 의식을 혼합하는 종교 행사로 시작했다.

WCC의 종교혼합주의적 '정령'이해는 전 하버드대학교 신약학 교수 크리스티 스탠달이 캔버라 총회에서 행한 강연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성경과 '에네르기'를 동일시하는 물질론적, 범신론적 정령론을 제시했다. 정령을 온 우주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설명했다.

WCC의 종교혼합주의적 경향은 캔버라 총회의 정령과 기도에 관한 여러가지 행사, 강의, 신학 논문에서 드러났다. WCC '종교 간 대화위원회-살아 있는 신인인들과 대화부' 위원장 웨슬리 아리아리지가 발표한 기도에 관한 논문도 그 점을 보여주었다. 그가 말하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 신자들의 기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종교혼합주의는 정현경 박사의 캔버라 총회(1991) 기조 강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강연 내용은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 종교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정현경은 기조강연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피포먼스'로 보여주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사마리즘 행사를 하게 했다. 이어서 정현경은 심복을 연상시키는 무명옷 차치고 교리를 읽고, 장호지에 쓴 영문 초혼문을 읽어내려갔다. 한 맺힌 '정령'의 내면을 가원하는 초혼제를 지냈다.

정현경은 기독교의 정령의 무속신앙이 말하는 죽은 자들의 영, 한국어에서 흔히 '혼, 귀신'이라고 일컫는, 동양 사상 또는 무속신앙의 영을 동일시했다. 거룩한 영은 기, 정령, 혼령, 지신이다. 이러한 정령은 생명의 에너지이며 바람이며 숨이다. 그것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 간의 조화로 온 내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 양화된다. 분열이나 분리가 있을 때는 기가 흐르지 않는다. '정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초혼

정현경은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기조 미당에서 "한 맺힌 정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하는 말로 초혼을 시작했다.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리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짐들이여, 종,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그의 아내 밋세바에 대한 디윗 왕의 욕정 때문에 다윗에 의하여 전정터로 보내져 죽임을 당한 충성스런 군인, 우리들의 영이여.

오소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을 마중 나온 첫 사람을 반재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아버지 압다의 믿음의 희생물이 된 그의 딸의 영이여. (종락) (다음호에 계속)

사설

WCC 제10차 총회를 반대하는 이유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우려에도 조지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인 '오직 성경'을 포기하고 신학적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WCC의 제10차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복음주의 세계대회인 WEA 세계대회에 대해 WCC 계열의 교단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싫으면 그만이지 왜 남의 잔치에 알기알부 말이 많이는 것이다. 힘 있는 단체인데 함께하면 득이 많으니 뭐 굳이 남의 판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3년도 WCC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WCC의 신학적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WCC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로서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성경과 복음에 충실하지 않은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WCC에서 말하는 종교간의 대화는 종교 다원주의를 근거로 하여 복음전파 등의 선교를 하지 말고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WCC 총회의 한국 개최와 같은 것은 복음의 왜곡이나 다른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정합동 제96차 총회는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WCC 총회를 반대하는 협의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구역과 주일학교 공과를 통해 WCC의 비신학적 사실을 교육시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한층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학부에서 조사한 관상기도와 왕의 기도에 대해서는 '참여금지' 결정을 내렸다. 비성경적·비개혁주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WCC 한국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다.

순복음본교회 새성전 입당-하남복음화 새장

1980년 경기도 하남시 덕평동 알칸토 공장 안에 창립되었던 한 교회가 30여 년만에 하남시 신장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남지역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가치를 드높였다.

순복음본교회 담임 오규섭 목사는 1990년 순복음엘칸토교회에 부임한 이래 이십여 년을 한결같이 섬겨 성도들과 함께 성전부지를 마련하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입당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다.

2009년 7월 첫 삽을 뜬 이래 재정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론 흥취가 앞을 막아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때론 넘어질지라도 그대로 주저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사명을 사모하시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 갈 때 막힌 곳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2년여의 기간동안 건축을 진행해 오면서 순복음본교회 오규섭 목사님과 성도들은 더욱 더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가 되었다. 섬기고 봉사하며 영혼구원을 위한 열정을 불태웠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했다.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다.

성도들의 열정이 모여져 재정적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갔으며 하나님의 전을 알차게 꾸미자는 뜻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에 조짐을 맞추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변화와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곳곳에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쏟았다. 또한 모든 시설들은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집중시켰다.

순복음본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등대가 되고 자원을 모아 지역사회와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심어 주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복음지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인: 정척위원장 조홍목 목사
● 발행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paran.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5가 89-1 (도모명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2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청신교회

2011 추수감사절

기도하는 무릎, 순종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Thanks Giving Day



담임목사 김인찬

주일 예배: 1부 07:00, 2부 09:00, 3부 11:00, 4부 19:00

충북 청주시 북대동 150-5 T.(043)234-1841

2011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말씀과 복음의 증거로 복음화 사역에 앞장서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대림벧엘교회



담임 정 부 목사

주일에배: 1부 09:00, 2부 09:30, 3부 11:00

홈페이지: www.daelimbethel.org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116-49호 Tel. 02)845-5095, Fax. 02)845-5096